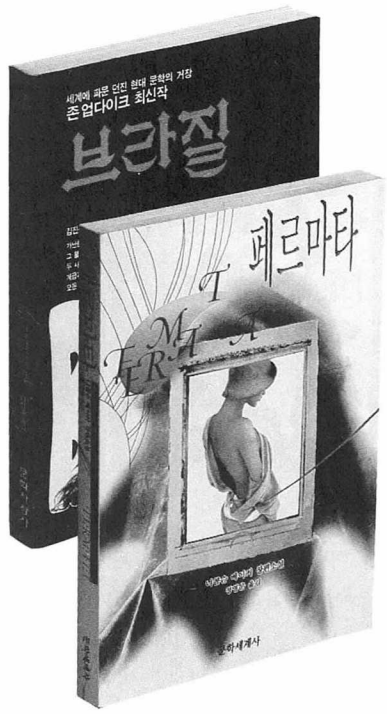
참을 수 없는 성(性)의 가벼움

본격 포르노문학 예고하는 번역소설 두 편



존 업다이크의 최신작 「브라질」은 그 방대한 스케일과 적나라한 성애묘사로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 또 시간을 멈추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성적 몽상의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니콜슨 베이커의 「페르마타」는 '훔쳐보기'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두 작품에서 포르노문학이 당당한 문학장르로 뿌리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부흥사'인 레슬리 피들러는, 모더니즘이 부르짖는 단말마적 고통과 이제 막 출산의 순간을 준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활력을 지켜보면서 새시대 문학의 지향점을 밝힌 「경계를 넘어서고 간극을 메우며」라는 화제의 논문을 쓴 바 있다. 이 글에서 피들러는 자본주의가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고전적인 계급이론이 무력해졌음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지식인 계층이 향유하는 고급문학과 대중을 위한 저급문화라는 과거의 문화적 틀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피들러는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여겨온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 새시대 문학운동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들러는 이와 함께 새로운 문학운동의 실천전략의 하나로 서부물, 공상과학소설, 포르노물 등을 문학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들러의 '교시'는 고갈의 시대를 맞이한 서구문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피들러의 주장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와는 관계없이 문학의 '우세종'이 과거의 그것과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것이 피들러의 견해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문학은 이미 서부물, 공상과학소설, 포르노물의 범람현상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같은 장르가 정상의 자리에 있던 순수문학을 추방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미국적 현상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추리소설이나 공상과학소설은 이미 점두에서 인기상품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포르노물도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정논쟁까지 불러일으킨 마광수의 소설이나 영화화되어 대히트한 장정일의 소설은, 포르노문학이 조심스럽게나마 우리 사회의 문화적 우세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두 남녀의 낭만적 모험담

존 업다이크의 「브라질」(김진준 옮김, 문학사상사 펴냄)과 니콜슨 베이커의 「페르마타」(정영문 옮김, 문학세계사 펴냄)라는 두 편의 번역소설에 관심이 끌리는 것은, 이 소설에 대한 우리 독자들의 반응이 우리 사회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 침투현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브라질」은 발행된지 한달만에 5쇄를 찍었고, 「페르마타」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등재되었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지각변동이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국내 독자들에게도 명성이 잘 알려진 존 업다이크의 최신작 「브라질」은 그 방대한 스케일과 적나라한 성애에 대한 묘사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부유한 백인 처녀 이자벨과 가난한 흑인 청년 트리스탕과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브라질」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층구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갈구하는 두 남녀의 낭만적인 모험담이다. 그러나 심층구조는 지극히 포르노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브라질이라는 광활한 대지를 무대 공간으로 이 소설은 인간의 성적 욕망의 극대치를 한껏 그려놓고 있다.(작가가 사랑의 도피처로 아마존강 유역의 원시림을 택한 것은 상징하는 바가 많다. 여전히 신의 창조가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을 두 남녀는 성적 해방의 에덴동산으로 만들어놓았다. 사회적 검열기제가 없는 원시림이야말로 욕망의 리비도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어나가다 작가의 지나친 상상력에 당황해야 한다.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자벨은 주술의 힘을 빌려 트리스탕을 백인으로 만들고 자신은 흑인이 된다. 마르케스 이후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뭇 궁금해진다.

「브라질」이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에 반해 「페르마타」는 노골적인 포르노물이다. "전미대륙을 황홀한 에로티시즘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화제의 베스트소설"이라는 광고문구만큼이나 노골적인 성묘사와 '훔쳐보기'의 즐거움을 그리고 있다.

시간 속 여행의 성적 몽상

이 작품은 화자인 '나'(그의 이름은 아놀드 스트라인이다)의 자서전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는 삼십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로 대학의 석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여러 곳의 사무실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타이피스트다. 이처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나'가 '문제적 개인'이 된 것은, 그가 손톱을 튕기거나 안경을 코 위로 치켜올리거나, 또는 수학방정식을 적음으로써 시간을 멈추게 하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제목인 페르마타는 바로 이런 정지된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디 뜻은 늘임표라는 음악용어다.

주인공 '나'는 자신이 멈추어놓은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는 이 여행에서 오직 여성을 통한 성적 만족만을 추구한다. 일례로 사무실에서 그에게 관심을 보인 여인의 옷을 벗긴다든지, 그녀의 아파트로 잠입하여 일상생활의 흔적을 엿본다. 주인공이 세상을 멈추게 하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안 것은 국민학교 4학년때이다. 그 순간 여교사의 알몸을 훔쳐본 이후 '나'는 줄곧 여성들에 대한 성적 몽상의 내용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 포르노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그 몽상의 내용이 평균인의 그것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포르노문학이란 넓은 의미의 성적 행위에 대한 정밀묘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르노문학은 두 갈래로 나뉘어 이야기된다. 첫째는 '에로물'(Eros)로, 정서적으로 서로 통하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동등한 파트너들 사이의 성관계를 묘사한 작품을 가리킨다. 두번째는 '죽음물'(Thanatos)이다. 이것은 에로스와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적인 동의, 진정한 평등, 감정적인 일체가 결핍한 성관계를 묘사한 것을 가리킨다.

「브라질」이나 「페르마타」는 에로물이다. 성적인 행위에 대한 현미경적 묘사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동등한 파트너의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두 작품이 포르노물에도 최소한의 문학적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 있는 '알리바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물론 읽는 이에 따라 그 평가는 판이하게 다르겠지만, 두 작품이 '함량미달'이라 여겨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억압된 성의 진지한 모색은 결여

그 첫째는 두 작품 모두가 과감한 성묘사를 통해 성적 해방을 희구하고 있음에도 권력에 의해 억압된 성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 역시 앞의 이유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데, 두 작품 모두가 최근의 페미니즘이 주목하고 있는 여성에게 행사되는 남성권력에 대한 탐사 또는 고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참을 수 없는 성적 가벼움에 휩쓸려 있는 두 작품에 이같은 '무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 모른다. 또한 이것은 두 작품의 한계이기 전에 피들러의 이론에 내재한 한계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이 봉착한 위기상황의 적설한 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포르노문학이 문화상품으로 전락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의 문학장르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푸코나 라캉의 딱딱한 이론에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권우〉

「브라질」 존 업다이크 지음, 김진준 옮김 / 문학사상사 / 380면 / 6000원

「페르마타」 니콜슨 베이커 지음, 정영문 옮김 / 문학세계사 / 304면 / 6000원